

10주 2020년 동계방학 목상지

2월 15일 월요일 <말씀목상> 렘 47-49

• 내용요약: 유다 주변의 열국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 중 첫 번째 예언으로 바벨론에 패퇴할 애굽의 운명에 관해 소개했던(46장) 예레미야는 47장에서 두 번째 대상으로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 예언한다. 유다에 위협적이었던 블레셋이 북방에서 밀려온 거센 홍수 곧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 갑자기 쇠락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 그 때 블레셋이 의지하던 주변나라들(4절)과 우상들(5절)이 얼마나 허무할 것인지 그 헛된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48장은 세 번째 예언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창18:37)에 관한 심판 예언이다. 사해동편 지방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이다(민21:1-25). 49장은 암몬(1-6절), 에돔(7-22절), 다메섹(23-27절), 게달과 하숨(28-39절), 엘람(34-39절)에 대한 심판을 다룬다.
 • 질문: 47장-49장까지 심판과 멸망이 예언된 나라들은?
 • 생각하기: 모압의 풍요로움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모두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자랑과 풍요로움은 심판날에 모두 사라진다.

2월 18일 목요일 <말씀목상> 겔 24-26

• 내용요약: 2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3차 침공이 시작되던 날,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다. 첫째는 꿀은 가마술 비유이다(1-14절). 이는 유다왕국의 처절하고 완전한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둘째, 아내의 죽음과 애통기 명령이다(15-27절). 이는 곧 유다왕국의 멸망이 너무 처절하여 애통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리라는 예언이다.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25장)는 이제 유다 주변 이방 나라들로 눈을 돌린다. 이후로 선지자는 32장에 이르기까지 이방 일곱 나라의 심판을 선포한다. 암몬(1-7절), 모압(8-11절), 에돔(12-14절), 블레셋(15-17절) 등 이방 네 나라의 멸망이 선포된다. 26에는 여호야긴 왕(B.C. 598년)이 바벨론에 포로되어간지 11년째 되던 해인 B.C. 586년에 선포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1-14절)과 두로의 파멸에 대한 예언(15-21절) 등이 소개된다.
 • 질문: 24장에 등장하는 한 가지 비유와 한 가지 명령은?
 • 생각하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경건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

2월 21일 일요일 <말씀목상> 겔 33-35

• 내용요약: 지금까지 여덟 장(25-32장)에 걸쳐 이방 나라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는 이제 다시 시선을 동쪽 유다백성에게로 향한다. 선지자는 33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 예언한다. 서론 격으로 유다의 죄악과 회개 촉구, 회개치 않는 자의 멸망이 선포된다. 첫째, 회개촉구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1-9절), 둘째, 회개치 않는 자의 심판과 회개하는 자의 구원(10-20절), 셋째, 예루살렘에 있는

2월 16일 화요일 <말씀목상> 렘 50-52

• 내용요약: 50장은 아홉 번째 대상으로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 예언한다. 바벨론은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백성을 징책하시기 위해 들어 쓰신 심판의 도구였다(1:13). 하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일에 힘쓰기 보다 사욕을 채우는데 열심을 내었고 강력한 힘으로 인해 심히 교만해지고 말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1-3절). 51장에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당시 맹위를 떨치고 있던 바벨론 세력이 멸망한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대해 찬양을 돌리게 된다(15-19절). 52장은 바벨론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과 멸망에 대한 역사적 보충 자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다.
 • 질문: 50장은 어느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가?
 • 생각하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해서 그 자체가 거룩하거나 온전한 존재란 뜻은 아니다.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2월 19일 금요일 <말씀목상> 겔 27-29

• 내용요약: 26장에서 두로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는 27장에서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며 탄식하는 노래를 지어부른다.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두로의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1-25절), 둘째, 두로의 패망과 열방의 탄식(26-33절)이다. 두로의 멸망을 통해 세상부귀 영화의 유한하고 한시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28장에는 나라가 부강해짐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심지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둘 만큼 교만했던 두로 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예언(1-10절)과 그러한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 두로 왕을 향한 애가가 소개되고 있다(11-19절). 덧붙여 두로의 이웃 나라요 두로와 운명 공동체라 할 수 있었던 시돈의 몰락에 관해서도 함께 예언되고 있다(20-26절). 29장에서 3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애굽의 운명에 관해 예언한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욱 의지하게 했던 바로의 교만한 행위를 고발했고(1-7절), 교만한 애굽이 폐허가 되었다가 40년 후 부분적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17-21절).
 • 질문: 40장은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인가?
 • 생각하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약4:6).

유다백성을 향한 심판 메시지(21-29절), 넷째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질책(30-33절)이다. 34장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을 목자와 양에 비유하여 교훈한다. 에스겔은 유다 말기 왕들의 실정을 고발함으로써 그들의 거짓 목자됨을 경고하고(1-10절), 참 목자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제시하고 있다(11-31절). 35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34:25-31)에 이어 제시되는

이름: _____ 학번: _____

2월 17일 수요일 <말씀목상> 겔 21-23

• 내용요약: 포로로 잡힌 유다장로들은 20장 마지막에 비유로 언급된 '불의 예언'(20:45-49)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핑계하였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 불의 예언이 유다왕국의 멸망에 관한 선포임을 쉽게 풀어서 선포하라고 지시하였다. 유다왕국의 멸망(1-7절)과 유다왕국의 황폐화(8-17절), 그리고 바벨론의 유다침공(18-24절)과 시드기야의 최후(25-7절)가 상세하게 예언되고 있다. 22장에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자행된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윤리 도덕, 종교, 사회적으로 온통 죄악이 팽배해 있던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세밀히 소개된다(1-16절). 유다가 특정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고발하고 있다(23-31절). 23장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음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 두 왕국의 영육간의 음란과 타락상을 고발하고(1-4절), 오홀라의 음행을 통해 사마리아가 앗수르에 의지한 죄악을 지적하며 오홀리바의 음행을 통해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영적 음란죄에 빠진 것을 지적한다.
 • 질문: 23장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비유된 음녀들은?
 • 생각하기: 최악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자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2월 20일 토요일 <말씀목상> 겔 30-32

• 내용요약: 30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의해 급속도로 몰락해 가는 애굽의 비극적인 현실을 소개하고(1-19절), 바벨론 군대의 포위하에 있던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원조하기 위해 진군했던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패퇴하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20-26절). 여기서 확인하듯 하나님은 민족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당신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행17:24-26절). 31장에는 마치 백향목처럼 경제와 정치 군사 면에서 화려하게 번성했었으나(1-9절) 그 영화를 그릇 활용함으로써 마침내 패망하고 만 앗수르의 역사적 사실을 일깨움으로써 애굽의 멸망도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다(10-18절). 32장에는 마치 그물에 걸린 악어처럼 그 최후를 맞게 된 애굽 왕 바로를 향한 애가(1-16절)와 애굽과 그 주변국들이 멸망의 웅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을 바라보며 애곡하는 내용이다(17-32절). 실로 애굽은 성경문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이다.
 • 질문: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32장)
 • 생각하기: 애굽의 몰락예언을 통해 확인하듯이 세상은 결단코 영원한 번영을 누릴 수가 없다.

이스라엘 땅의 안전성에 대한 보증이다. 에돔의 멸망(1-15절), 열국의 멸망(36:1-15절),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회복(36:16-38절)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회복의 확실성을 보증하고 있다.
 • 질문: 34장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 생각하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사명을 받았다. 오늘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해야 할 파수꾼의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